

지체의 말씀

불기 2562년 5월 / 통권 447호



대한불교조계종 **진해대광사**



시와 불교의 만남

證道歌(증도가)

종역통설역통 정혜원명불체공
宗亦通說亦通하면 定慧圓明不滯空이로다

종지도 또한 통하고 설법에도 또한 통하면
선정과 지혜가 원만하고 밝아서 공에 막히지 않는다.

비단아금독달료 항사제불체개동
非但我今獨達了라 恒沙諸佛體皆同이로다

지금 나 혼자만 통달 해 마친 것이 아니요
항하강의 모래 수와 같은 모든 부처의 본바탕은 모두 같다.

목 차

시와 불교의 만남 · 2

생각의 터 · 4

불교와 음악 / 윤성스님

불교상식 · 7

천수경 강의(千手經 講義)

부처님의 말씀 · 12

알림마당 ·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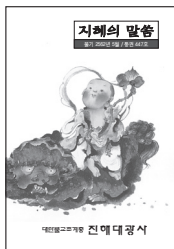
대광사 5월의 행사

고맙습니다

5월 유치원 행사

어린이법회 5월 활동

템플스테이 봄 관광주간 안내



표지그림 / 원성스님

● 발행처 / 대광사

경남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303(태백동)

Tel. 055) 545-95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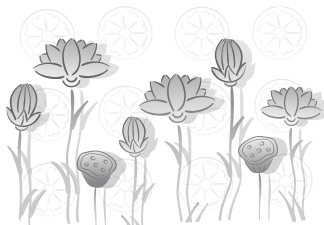
홈페이지 / ① 대광사

② www.daegwangsa.or.kr

● 발행인 · 편집장 / 서경스님

● 주 간 / 이숙경

● 편집 · 인쇄 / 디자인스프링 Tel. 055) 602-6267





불교와 음악

운성스님 / 대광사 회주

우리에게는 ‘수제전’과 함께 유엔에서 지구상의 가장 훌륭한 음악유산으로 지정한 ‘영산회상곡’이라는 소중한 음악이 있다.

영산회상곡은 세종께서 부처님 가피로 아내 소헌왕후 영혼이 극락에 왕생하시길 기원하여 ‘석보상절’ ‘월인천강지곡’과 함께 만든 불교음악이다.

영산회상은 부처님께서 영축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실 때 하늘에서 꽃비 내리고 천상음악이 신들의 축복으로 연주되며 수많은 대중이 합창으로 설법 듣던 장엄한 장면을 재연한 것이다.

송유배불 정책이 팽배하던 조선시대에도 불구하고 세종은 1447년 소헌왕후 왕생을 빌어 ‘석보상절’을 짓게 하고 1457년에 죽은 왕세자 명복을 위해 ‘금강반야경’을 손수 쓰고 ‘능엄경’·‘법화경’을 교정하게 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음악은 종교와 더불어 발달하며 역사를 함께 하는 과정을 거친다. 신라 백제 고구려로부터 시작 되었을 것으로 짐작되는 궁중악이나 법회악은 왕조가 바뀌고 제도가 바뀌면서도

면면히 이어졌다.

절에서 행해지는 각종 법요에는 크고 작은 악기가 반드시 사용 된다. 법요의 성격에 따라 쓰는 악기가 달라지는데 더러는 악기라고 하기에 적당치 않을 정도로 단순하고 소박한 악기가 사용되기도 한다.

이를 테면 목탁이 그 예인데 선불교를 표방한 조계종에서는 법요에 여러 악기 쓰는 것을 피하고 목탁이나 죽비만을 주로 사용 한다.

그러나 많은 대중이 모여 치르는 팔관재나 수륙회 백고좌회 등 큰 행사에는 ‘영산회상’ 이나 ‘영산작법’ 등의 음악과 승무를 베풀며 전통 악기가 다 동원 되는 삼현 육각의 국악 관현악이 연주되기도 한다.

신라에서는 9세기 무렵 진감선사가 중국에서 범패를 배워와 옥천사(지금의 쌍계사)에서 많은 제자들에게 어산을 가르쳤다고 한다. 어산 외에도 ‘무애가’ 와 ‘거사소리’ 가 있었다고 한다.

우리 나라 불교음악의 진원지를 대체로 쌍계사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는 진감국사에 의한 기록 때문이다. 이 때 진감국사가 가르쳤다는 어산은 염불 소리를 말한다. 길고 힘 있는 여운을 지닌 소리 짓이다.

백제는 오히려 신라보다 음악 건축 직조 등 각종 문화가 앞 선 나라였기에 더 발달하고 더 풍성한 음악이 있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일본에 악기와 악공과 악사를 보내어 수준 높은 문화를 전한 사례가 있었던 기록이 이를 증명한다.

따라서 불교 법요를 위한 음악도 수준 높게 연주 되었을 것으로



집작한다. 백제 능산리 고분에서 출토 된 국보 제287호 ‘백제금동대향로’가 이를 잘 증명하고 있다. ‘백제금동대향로’에는 많은 스님들과 악공들이 새겨져 있으며 각종 악기들이 상세하게 조각되어 있다.

지금 국악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입시를 위하여 반드시 영산회상을 익혀야 한다. 그들이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서는 이 곡으로 시험을 치르지 않으면 안 된다.

서양음악이 기독교에서 발전의 기틀을 얻었다면 우리 고전음악은 불교와 더불어 발전하고 진보한 역사를 지니고 있다. 우리가 우리 음악을 알지 못하고 우리 음악을 일상에 같이하지 못하는 모순에 빠져 있어 그 소중함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 옛 음악은 이렇게 불교와 더불어 발전해 왔다.

우리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공식적으로 사천 삼백년(비공식으로는 칠천년이 넘는)의 길고 긴 역사를 가진 민족이다. 역사가 길다는 것은 그만큼 문화가 깊고 다양하며 우수하다는 이야기다.

세계가 극찬하는 음악이 있었다. 세계인이 놀라는 문자가 있었다.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다양하고 과학적인 음식이 있었다. 세계인이 두려워하는 재능이 있었다. 그들의 맥박 속에는 오래도록 불교가 함께하고 있었다.



불교 상식

천수경 강의(千手經 講義)

10대 이명(十大異名)의 관음보살과 본사 아미타불

십원 육향의 발원문이 끝나면 십대 이명의 명호와 본사 아미타불의 명호가 나옵니다.

나무관세음보살마하살(南無觀世音菩薩摩訶薩)

나무대세지보살마하살(南無大勢至菩薩摩訶薩)

나무천수보살마하살(南無千手菩薩摩訶薩)

나무여의륜보살마하살(南無如意輪菩薩摩訶薩)

나무대륜보살마하살(南無大菩輪薩摩訶薩)

나무관자재보살마하살(南無觀自在菩薩摩訶薩)

나무정취보살마하살(南無正趣菩薩摩訶薩)

나무만월보살마하살(南無滿月菩薩摩訶薩)

나무수월보살마하살(南無水月菩薩摩訶薩)

나무군다리보살마하살(南無軍荼利菩薩摩訶薩)

나무십일면보살마하살(南無十日面菩薩摩訶薩)

나무제대보살마하살(南無諸大菩薩摩訶薩)

나무본사아미타불(南無本師阿彌陀佛)



이상의 성호 중에 아미타불을 제외하고는 다 관음보살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 중에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관세음보살’은 관음보살의 근본을 말하는 것이며, 맨 마지막에 나오는 제대보살은 관음보살의 총칭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보살들을 관음보살의 10대 이명(十大異名)이라 합니다.

이미 살펴본 대로 『천수경』은 대승불교의 기본적 실천 수행인 육행(기도, 발원, 귀의, 송주, 찬탄, 참회)과 오문(예경문, 공양문, 참회문, 발원문, 지송문)을 갖추고 있습니다.

신묘장구대다라니

앞에서도 말했듯이 『천수경』에서는 천수다라니가 중심입니다. 이 천수다라니를 ‘신묘장구대다라니(神妙章句大陀羅尼)’라고도 하고 ‘대비주(大悲呪)’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내용은 다 관세음보살님의 자비력과 위신력을 다라니에 나타낸 말로써 동일한 의미입니다.

『천수경』의 본래 모습은 ‘천수천안관자재보살광대원만무애대비심대다라니’란 제목에 이어서 바로 천수다라니로 들어가는 체제였습니다. 그 외에 여러 항목이 삽입된 것은 모두 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다라니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시해서 봉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다라니의 발생 동기와 성립 과정은 역사적인 입장에서 과학적인 안목으로 추구해 볼 수도 있겠으나, 다라니의 참다운 생명은 신비적인 신앙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도 신앙적인 태도로 다라니를 이해하고자 합니다.

천수다라니는 과거 부처님이신 ‘천광왕정주여래(天光王靜住如來)’께서 관세음보살을 위하여 설하신 것입니다.

관세음보살은 이 다라니를 듣고 무량수(無量數)의 머리와 무량



수의 손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천수천안관세음보살’ 이신 것입니다. 관세음보살은 자신이 성취한 것과 동일하게 중생도 성취하도록 중생들에게 이 다라니를 선설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이 다라니를 나직하게 독송하는 사람은 관세음보살의 원력으로 모든 것을 성취합니다.

그리고 다라니에는 낱낱 구절마다 불가사의한 신비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정중한 마음으로 간절히 읽을 때, 업장소멸(業障消滅)과 소원성취(所願成就)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천수다라니에는 현재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것을 모두 대조해 보면 내용에는 조금씩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인도에서부터 여러 형태로 전수된 천수다라니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는 점입니다. 둘째는 중국에서 인도 음을 중국 한문 음으로 옮길 때 각기 다르게 옮겨진 게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라니의 길고 짧은 형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라니는 음성만 다라니이기 때문에 다만 지극한 마음으로 외우는 데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다라니는 한 말 속에도 많은 뜻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 뜻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다라니는 늘 신비영역에 속해 있습니다. 다라니 속에 잠재해 있는 신리력은 나타낼 수 없는 일입니다. 다라니는 언어 조직보다도, 음성에 포함된 신비력과 감응력이 생명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종교적인 신앙심으로 독송하는 데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참회계(懺悔偈)와 십악 참회(十惡懺悔)

아석조소제악업(我昔所造諸惡業)

개유무시탐진치(皆由無始貪嗔癡)

종신구의지소생(從身口意之所生)

일체아금개참회(一切我今皆懺悔)



예부터 지은 모든 악업은 다 탐진치 삼독으로 말미암아 몸과 입과 생각으로 지은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저는 지금 다 참회합니다.

이 참회게는 『화엄경』 「보현행원품」에 나오는 게송입니다. 보현보살께서 자비심으로써 깊은 보살행을 펴시면서 중생의 삼독심을 깊이 참회한 게송입니다. 참회란 말은 범어와 한문이 합성된 말입니다. 참(懺)은 범어 참마(ksamaya)의 줄인 말이며, 이것은 번역하면 회과(悔過), 개회(改悔)로써 자신의 허물을 반성하고 새로운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범음의 ‘참’과 한문의 ‘회(悔)’를 다 표현하여 참회라 부릅니다. 참회는 종교적 신앙심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 참회의 과정을 통해서 마음의 새로운 문이 열리게 됩니다. 자신의 적은 죄과라도 깊이 반성하고 부처님께 용서를 비는 마음이야말로 그대로 불심의 모체가 되는 것입니다.

참회게에 이어 ‘참죄업장십이존불’의 명호가 나옵니다. 보승장불을 비롯하여 제보당마니승광불까지가 바로 12존불입니다. 이런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것은 우리가 십악 참회를 하기 위해 먼저 증명을 요청하는 일입니다. 12존불을 증명불로 모시기 위하여 정중히 명호를 외우는 것입니다.

12존불에 이어서 십악(十惡) 참회문으로 계속됩니다. 십악은 1) 살생(殺生) 2) 투도(偷盜) 3) 사음(邪淫) 4) 망어(妄語) 5) 기어(綺語, 진실하지 않게 꾸며서 하는 말) 6) 악구(惡口, 욕설) 7) 양설(兩舌, 이간질하는 거짓말) 8) 탐애(貪愛) 9) 진에(瞋碍) 10) 치암(痴暗)으로써 신구의 삼업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것을 다 참회하는 것이 십악 참회입니다.



부처님의 말씀



첫 번째 말씀(숫타니파타)

제1품 뱀의 품

8. 자애의 경

[세존] “널리 이로운 일에 능숙하여서 평정의 경지를 성취하고자 하는 님은 유능하고 정직하고 고결하고 상냥하고 온유하고 교만하지 말지이다.

만족할 줄 알아서 님이 공양하기 쉬워야 하며, 분주하지 않고 생활이 간소하며, 몸과 마음 고요하고 슬기로우니, 가정에서 무모하거나 집착하지 말지이다.

다른 양식 있는 님들의 비난을 살만한 어떠한 사소한 행동이라도 삼가 하오니, 안락하고 평화로워서, 모든 님들은 행복해지이다.

살아있는 생명이건 어떤 것이나, 동물이거나 식물이거나 남김없이, 길다랗거나 커다란 것이나, 중간 것이거나 짧은 것이거나, 미세하거나 거친 것이거나,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멀리 사는 것이나 가까이 사는 것이나, 이미 생겨난 것이나 생겨날 것이나, 모든 님들은 행복하여 지이다.



서로가 서로를 속이지 말고 혈뜰지도 말지니,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분노 때문이든 증오 때문이든 서로에게 고통을 바라지 않나이다.

어머니가 하나뿐인 아들을 목숨 바쳐 구하듯, 이와 같이 모든 님들 위하여 자애로운, 한량없는 마음을 닦게 하여지이다.

그리하여 일체의 세계에 대하여 높은 곳으로 깊은 곳으로 넓은 곳으로 장애없이, 원한없이, 적의없이, 자애로운, 한량없는 마음을 닦게 하여지이다.

서있거나 가거나 앉아있거나 누워있거나 깨어있는 한, 자애의 마음이 굳게 새겨지이다.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청정한 삶이옵니다.

삿된 견해에 의존하지 않고 계행을 갖추고, 통찰을 갖추어 감각적인 욕망을 다스리면, 결코 다시 윤회에 들지 않을 것이옵니다.

- 다음호에 계속 -



대광사 5월 법회 및 행사

- ◆ 5월 9일 관음재일 다라니기도 오후1시 대웅전
- ◆ 5월 13일 천일기도 800일 회향
- ◆ 5월 14일 천일기도 900일 입재
- ◆ 5월 15일 음력 4월 초하루 기도 입재
- ◆ 5월 17일 초하루 기도회향
- ◆ 5월 18일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 오후7시 중원로터리
- ◆ 5월 22일 부처님오신날 오전9시 대광사
- ◆ 5월 29일 음력 4월 보름기도
- ※ 문의 및 접수 : 대광사 종무소 ☎055-545-9595



불기2562년부처님 오신날



- 일시 : 2018년 5월22일(화) 오전 9시
- 장소 : 대웅전 및 설법전
- 연등 접수중
- 문의 및 접수 : 종무소 ☎ 545-9595



제20회 청소년과 함께하는 산사음악회



- 일시 : 2018년 6월2일(토) 오후 7시
- 장소 : 대광사 경내



태백동 급식소 후원금 현황입니다.

(3월 20일~4월 16일)

홍승운 20,000	황두관 10,000	(주)카텍 300,000	조권일 100,000
김재이 30,000	김태연 20,000	박미애 10,000	조성부 100,000
오미라 30,000	김인복 10,000	김지현 100,000	이미정 30,000
공상섭 30,000	홍예현 50,000	박덕선 100,000	찬불단 50,000
박진호 50,000	최진환 10,000	유봉악 10,000	서경스님 50,000

◆ 급식소 후원 계좌 : 수협 921-61-001338 대광사 ◆

※ 후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군법당 지원금(3,20~4,16)

하형규 10,000	강란 10,000	대광사 후원회 50,000
유미란 50,000	홍예현 10,000	오미라 10,000
안옥래 10,000	금강지 10,000	김인복 30,000
		이봉숙 10,000
		서경스님 100,000

♥ 지혜의말씀

(영) 청량심 10,000

♥ 초하루 공양

음력 2월 누락자 - 대도화 300,000, 음력 3월 - 대광지 100,000

♥ 용왕재 공양

이용원(꽃공양) 20,000 안종권 1,000,000



5월 유치원 행사

1. 어린이날 행사 - 동극관람

○ 일시 : 5월 4일(금)

2. 봉축 대광유치원 가족 문화마당

○ 일시 : 5월 19일(토) 오전 10시~12시

○ 장소 : 대광유치원 운동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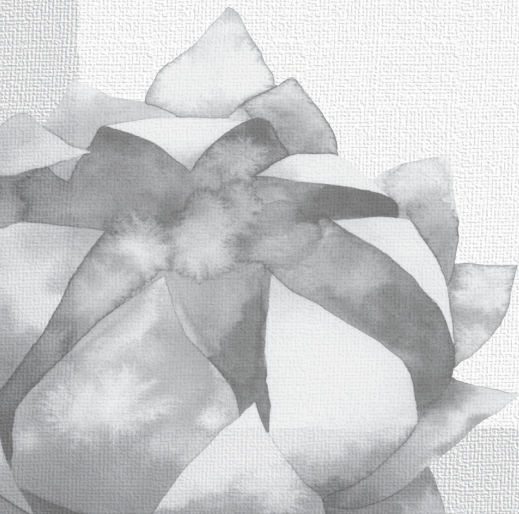
○ 대상 : 대광유치원 원아와 가족

○ 내용 : 불교문화체험활동, 창의문화체험활동, 등

5월 어린이법회 활동

1. 성지순례 법회 - 양산 통도사, 통도환타지아

○ 일시 : 5월 12일(토)



템플스테이 봄 관광주간 “만원의 행복”

- 가능일: 4월 28일~29일 /
5월 1일~2일 / 5월 5일~8일
- 2. 동참금: 1만원(1인당)
초등학생부터 가능(미성년자는 보호자 동참필)
- 3. 가능인원 : 선착순 50명
- 4. 문의 및 접수 : 종무소 055-545-9595

대한불교조계종 진해대광사



온라인 입금 안내

경남은행 : 518-07-0096440	예금주 - 대광사
수협 : 921-61-000421	예금주 - 대광사
농협 : 821145-51-042833	예금주 - 대광사
국민은행 : 654301-04-231813	예금주 - 대광사